

우즈베키스탄 건설표준 제정을 위한 여정

A Journey to Establish Construction Standards in Uzbekistan

김지영 | Jiyoung Kim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석사과정
염춘호 | Chunho Yeom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시작하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은 해외건설 및 국제도시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축적한 정책 경험을 외국 공무원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2012년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만난 외국 공무원들과 한국 학생들은 학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국제적 도시 솔루션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본 기고문에서는 그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건설 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해외건설협회가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ODA 수탁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압축 성장과정의 각종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으로 낙후된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진행되며 현재 1차년 사업이 끝나고 2차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출장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현지 보고회의를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2차년 중간보고를 위해 각 연구기관에서 2~3명씩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비행 시간은 7시간 반. 밤이 되어야 현지에 도착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생각보다 멀리 있었다.

다음날 우즈베키스탄 건설연구소에 방문하여 중간보고 전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지 관계자와 인사를 하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직원들의 역량강화 방한 연수를 두 차례 진행하였는데, 그 때 한국에 방문했던 공무원 중 한 명이었다. 서로 아는 얼굴이 보이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건설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안건으로는 건설 기준 및 건설시험 현대화와 주요 현안 이슈 해결(내진 및 안전, 건물에너지 등) 등이 있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건설 기술자 역량강화를 통한 건설품질관리 향상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건설기술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있는 시공기술자의 자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지어진 건물에서도 붕괴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다. 따라서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나고 후 진행될 2단계 사업을 '우즈베키스탄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개발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설품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관련 국가표준 및 시험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인력 양성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건설 전공 대학 졸업생 수는 연간 5,015명인데, 이 배출 인원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건설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등을 볼 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강화 부문에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졸업생 및 경력자에 대한 자격제도가 없고 건설기준, 건설품질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인 공업수학이나 지학 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교수진 대부분이 구소련시대 학자 출신들로 서구의 현대화된 건설 기준에 대한 접근이 취약하고(언어 문제가 가장 크다) 변화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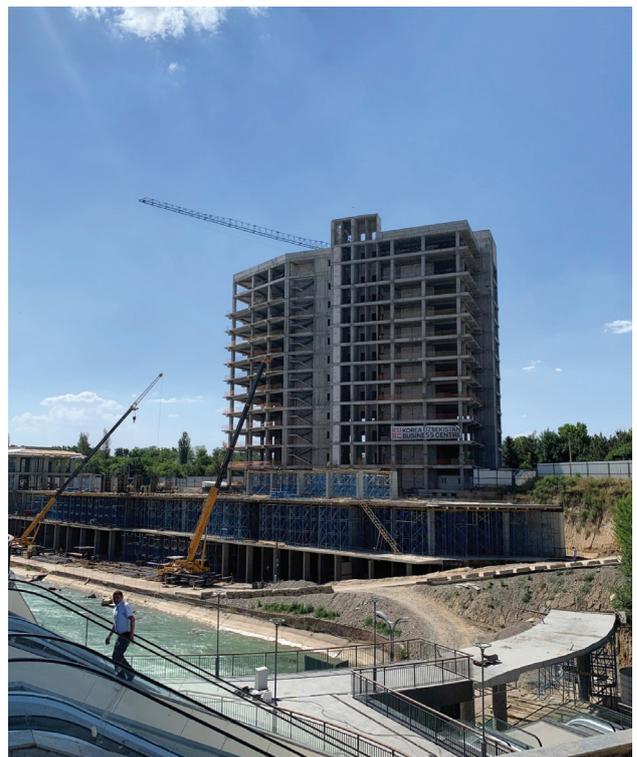


그림 1. 우즈베키스탄에서 짓고 있는 고층 건물의 모습



그림 2. 중간보고 회의



그림 3. 우즈베키스탄 결혼식

거부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면서 건설연구소의 건설시험인증 제도 개선과 건설현장에서 건설품질 관리를 담당할 시공 기술자 역량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출장 셋째 날, 중간보고가 있는 아침이 밝았다. 새로 임명된 우즈베키스탄 측 프로젝트 책임자인 세르조드 연구소장이 우리가 있는 호텔로 찾아왔다. 그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졸업생이었고, 염춘호 교수님과 인연이 있었다. 중간보고가 진행되기 전에 약간의 담소를 나누며 회의장소로 이동하였다. 그는 시립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국 생활이 만족스러웠고, 한국에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가 올해에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중간보고에서는 1,2차년도에 수행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된 실적 보고를 하였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본 ODA 사업 후속 사업 준비와 현지 주요 이슈 논의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측 프로젝트 책임자가 세 번이나 바뀌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이 사업에 대해 약간의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세르조드 연구소장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다행히 그는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의욕이 넘치는 책임자였다. 그동안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씩 정리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그와 서울시립대학교와의 인연이 이 프로젝트의 협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를 보며 현재 대학원에 있는 외국인 원우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있는 외국인 원우들은 모두 각 국가의 공무원들이기에 훗날 국가 간의 사업에서 만나게 된다면 협력이 더욱 잘 될 뿐만 아니라

양 국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일정이 종료되고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직원의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결혼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며 몇 시간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객들은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었다. 많은 우즈베키스탄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인 나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우즈베크어나 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어가 공용어다)를 할 수 없어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마치며

처음 방문해본 우즈베키스탄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꽤 높아 보였다. 거리 정비도 잘 되어있었으며 고층 건물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았고, 공사 중인 고층 건물들이 곳곳에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비롯해 여러 ODA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역량을 높이면 머지않아 큰 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우즈베키스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도 자국의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기에 여러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싶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신 염춘호 교수님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친다.

WRITER INTRODUCTION



김지영 연구원은 서울시립대학교 내 국제도시 및 인프라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첨단녹색도시개발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jiyoung8@uos.ac.kr



염춘호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고속도로 공사 구간 용량산정에 대한 통계모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8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 해외건설관리, 교통계획 및 정책, 위험관리, ODA개발,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chunhoy7@uos.ac.kr